

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- 8 편

☑ “계약 전에 이것만 체크해도 80%는 예방됩니다” - 계약서 최종 검토 체크리스트

1. 실전 사례: 서명은 했지만, 빠진 게 너무 많았다

중국 바이어와의 첫 계약을 체결한 전자부품 업체 O 사. 거래 조건은 메일로 몇 번 주고받았고,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출하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
- 인코텀즈 명시 없음 → 운송 비용 분쟁 발생
- 결제 방식 미구체화 → 대금 지연
- 사양 조항 미비 → 제품 불일치 클레임
- 서류 책임 불명확 → 통관 지연 책임 공방
- 분쟁 관할 미정 → 소송 시 지역 법원 선택 어려움

O 사는 결국 일부 금액을 손해보며 타협했으며, “계약서 작성만 꼼꼼했어도 방지 가능했던 일”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

2. 문제 분석: 계약 전 검토가 계약서 품질을 좌우한다

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:

- 누락된 조항이 클레임 또는 분쟁의 약점으로 작용
- 계약 체결을 서두르다 보면 관성적인 실수 반복
- 초안은 바이어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수출자 입장에서 불리

3.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(실무용)

검토 항목	확인 포인트
☑ 계약 당사자 정보	회사명, 주소, 대표자 정보가 정확한가?
☑ 계약 제품/서비스	사양서, 도면, 규격이 첨부되어 있는가?

☒ 수량 및 단가	제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?
☒ 납기 및 인도 조건	날짜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?
☒ 인코텀즈 조건	FOB, CIF 등 조건과 목적지가 명시되었는가?
☒ 결제 조건	방식(T/T, L/C), 시기, 통화, 지연이자 조항 포함 여부
☒ 서류 리스트	인보이스, PL, B/L, C/O 등 서류가 명시되어 있는가?
☒ 하자보증/클레임 조항	품질보증 기간,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?
☒ 책임 범위 및 면책	간접 손해,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 제외 여부
☒ 분쟁 해결 조항	준거법 및 관할 법원, 중재기관 지정 여부

4. 사전 예방 팁: 실무에서 바로 활용하는 계약 점검법

- 계약 체결 전, 반드시 체크리스트 항목별 체크 완료
- 거래 규모 클수록 법률 검토(내부 법무/외부 자문) 병행
- 계약 초안은 바이어가 유리하게 작성했을 가능성 항상 염두
- 거래 전례가 있어도 매번 새 계약서 확인 필수 (조건 변동 주의)
- 체크리스트는 회사 내부 매뉴얼화하여 담당자 교체에도 연속성 유지

☒ 마무리 정리

계약서는 거래의 시작이자, 분쟁 시 무기가 되는 문서입니다. 체결 전에 단 몇 분만 투자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확인한다면, 불필요한 손실과 분쟁의 80%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회사 차원에서도 이 점검표를 내부 절차로 정립하는 것이 실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입니다.

시리즈 마무리

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- 1 편부터 8 편까지 완료되었습니다.

전문가가 아닌 실무자 입장에서, 계약서에서 자주 놓치는 조항과 사례별 대응 방법을 기반으로 구성된 본 시리즈를 통해, 한층 더 실전적인 계약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.